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지침 마련

도교육청, 관련 지침안 입법예고... 채용업무·수의계약 담당자·법 근거로 제한 대상 확인해야·내달 19일부터 시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라북도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관리하

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 2022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침의 적용 범위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직속 및 소속기관, 공립학교) 공직자와 고위공직자, 전라북도 교육청에 파견된 공직자와 고위공직자 등이며, 각급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맡게 된다.

소속 공직자는 관련법에 따라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 및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 관련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 제출해야 한다.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어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스스로 판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각급기관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

우 등을 제외하고는 관련법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당사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지침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3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천호성 후보, “진보교육감 선출로 보수정권 교육자치 훼손 막아야”



천호성 민주당 후보는 교육감 단임후보는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 원회가 교육감 주민주선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천 후보는 “지방자치의 원칙은 주민들이 직접 대표를 뽑고 집행기관을 선출하는 것”이라며 “주민직선제를 바꾸겠다는 것은 보수정권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주민직선제 전환 이후 보수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교육계의 강한 반발

에 부딪혔다”며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윤석열 인수위에서 다시 직선제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천 후보는 “보수정권은 교육혁신을 주장하며 선출된 진보교육감들을 마치 편향된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색칠 덧씌우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보수가 됐지만 교육만큼은 반드시 진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끝으로 천 후보는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교육자치는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22일까지 온라인 원서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응시자격은 18세 이상(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 도내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22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c.gakr)에 접속해 나이스 교직원온라인채용) 지방공무원 채용 바로가기)를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소식) 시험/채용/구직) 지방공무원시험)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시험은 필기시험(6월 18일)과 인성검사(8월 2일), 면접시험(8월 12일)을 거쳐 8월 29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한편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2회 시험은 8월 22~28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필기시험(10월 29일)과 인성검사(11월 22일), 면접시험(12월 2일)을 거쳐 오는 12월 1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무형유산 자료 연대 추정 기술특허 취득

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 박순철 전 IT지능정보공학과 교수 총괄 빅데이터·딥러닝으로 연대 분별치 않은 기록물 시기 추정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소장 함한희)는 '자연어 처리를 통한 무형유산 자료의 내용 연대를 추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이라는 특허를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빅데이터와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심층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한 기술로, 역사적 연대가 분별하지 않은 개인 기록물의 역사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기술의 개발은 무형유산정보연구소의 시스템 파트를 총괄하는 박순철 전 IT지능정보공학과 교수(사진)가 맡았다.

박 교수는 현재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의 공동연구교수로 있으며, 컴퓨터학과 인문학이 결합된 연구를 2002년부터

지속해오고 있다.

박 교수는 “빅데이터는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보고”라며 “축적된 인문학적 데이터에 최신 IT기술이 접목되면 다양하고 심화된 연구가 가능해진다. 앞으로도 AI 딥러닝과 무형문화유산 자료를 접목한 기술들을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는 2013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중점연구소로 지정돼 무형유산 연구와 활용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무형유산 관련 전문지식 5만여 항목과 고문서 2만 건 등 총 7만여 항목을 검색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계약담당공무원 맞춤형 교육 진행

18~22일까지 조달교육원 위탁 교육... 821개 기관 830여 명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8~22일까지 각급 학교 계약업무 전문성 신장을 위한 '2022년 계약담당공무원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수시로 개정되는 계약 법령 숙지하고, 유권해석 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계약업무담당 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물품·용역 계약 일반 및 시설공사계약 전반에 대해 안내해 민원 대응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이다.

조달교육원에 위탁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공립단설유치원, 공·사립학교가

지 총 821개 기관 8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교육으로 이뤄진다.

지역별로 교육을 진행하며 ▲18일 도교육청과 전주 단설유치원·학교 ▲19일 군산, 완주, 진안지역 단설유치원·학교 ▲20일 익산, 무주, 장수 지역 단설유치원·학교 ▲21일 정읍, 임실, 순창, 고창지역 단설유치원·학교 ▲22일 남원, 김제, 부안지역 단설유치원·학교 순이다.

주요 내용은 ▲계약 지침과 지방계약 관련 법령 안내 ▲물품·용역 구매계약 절차업무 처리 절차 ▲물품·용역 유권해석 및 감사사례 ▲시설공사계약(계약방법·낙찰자 결

정 등) 전반 등이다.

이와 함께 계약업무담당자 청렴 교육, 각급 학교 계약업무 관련 지침 안내,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구매제도 의무구매 안내 등도 이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개정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유권해석·감사 사례를 공유해 학교를 포함한 각급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며 “신뢰받는 계약 업무추진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간담회

전주비전대-전북대, 원격수업 활성화·상호협력체계 강화 '맞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지난 15일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와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대학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북권역 원격수업의 활성화와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전북권역 원격수업 학점 교류 활성화 △양질의 콘텐츠 공동 개발 △권역 간 원격역량강화 및 수업의 질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은성 기자

한편 양 대학은 2020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합의된 전략들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정상모 총장은 “양 대학이 서로 보유하고 있는 교육전반의 인프라와 전문 교육역량을 공유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 대학의 위기 극복과 미래 교육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 브랜드 평판

원광대학교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실시한 4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대학 브랜드 평판이 호남권 사립대학 중 1위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원광대는 이중 18위, 호남권 사립대 중에는 1위로 분석됐다.

이번 대학교 브랜드 평판지수는 3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1억5890만6890개를 분석한 결과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